

지역 소식통

소형건설기계 면허교육 정읍시, 성황리 마무리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교육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

3톤 미만의 소형건설기계(굴삭기, 지게차, 스카프터 등)는 농민들의 영농작업에 있어서 다양한 농작업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농기계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통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안전사고에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면허취득 교육을 진행해 현재까지 419명이 면허를 취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1차로 120명을 교육했고 하반기에는 지난 27일까지 68명을 교육해 총 188명이 면허를 받게 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치매안심센터

목련아파트 화단 조성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목련아파트 2단지 내에 미니 정원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공동체 마을이다. 시는 지난해 신대인 우령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목련아파트 2단지를 지정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정원은 사계절 식물을 식재해 마을주민과 어르신들이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성됐다.

이날 정원 조성에는 전북대학교 원예학과 최정란 교수 등 4명의 지도하에 치매 극복 봉사단과 마을주민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단지 내 모퉁이 화단과 관리사무소 옆 화단에 문고루와 아스타국화 등 10여 종 230여 그루의 허브와 야생화를 식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식초문화대전 연다

내달 3일 개막... 특강 · 컨퍼런스 · 전시회 등 열려 다양성 · 가능성 확인, 식초산업 도약 방안 논의도

한반도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식초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제2회 고창 식초문화대전을 오는 11월 3일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연다. 이번 행사는 식초문화도시 선포 1주년을 기념하고, 식초문화대전을 통해 식초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내몸을 살리는 하루식초'라는 주제로 이경제 한의원장의 특강이

진행된다. 코로나로 인해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려는 수요가 늘면서 식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또 '식초의 맛'이라는 주제로 초맛의 원류를 찾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컨퍼런스가 열린다. 식초뿐만 아니라 와인, 우리 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과 고창 식초산업이 도약할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11월 2~5일에는 식초문화 전시회도

열린다. 식초 초막 사진, 300여점의 관내·외 식초 부부막에서 사용했던 전통 식초 항아리인 초두루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초항아리 등이 전시돼 다양한 식초를 감상할 수 있다.

식초 제품개발과 기술이전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국립농업과학원 전북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의 식초홍보관도 같이 운영된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식초산업육성 T/F 이형진 팀장은 "식초문화도시 고창을 다시 한번 알리고 식초를 즐기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화합과 공감의 장소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으로 식초산업을 육성해 세계대 식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29일 정읍 덕두영농조합법원에서 가바쌀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정읍 '가바쌀' 미국 수출길 올라

11톤 규모, 가격은 7400만원... 당뇨 · 비만 개선 탁월

코로나19로 국내 농산물 수출이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정읍에서 생산된 고품질 '가바쌀'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시는 29일 정읍 덕두영농조합법원에서 가바쌀 수출을 축하하고 향후 수출 활성화를 기원하기 위해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정읍 덕두영농조합법인에서 열린 상차식에는 이완욱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양지 농수산유통과장, 마미코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출하는 정읍 가바쌀은 칠보면 백암리 덕두마을 도정 공장 제품으로 수출물량은 약 11톤, 가격은 7,400만원에 이른다.

친환경 가바쌀이 약 10톤(5kg, 2,000포대) 6,300만원 규모이고, 가바쌀 누

룻지가 0.8톤(500g 단위, 1,600개)으로 1,100만원 규모다. 이는 일반 쌀과 비교해 약 2.5배가량 높은 가격이며, 미국 내 로스앤젤레스와 부에나비스 대항마트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각종 아미노산이 풍부한 갈색 가바쌀은 쌀눈의 크기가 일반 쌀보다 4.3배 크고, 당도와 비만 개선에 탁월하다. 특히, 뇌 활성화와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GABA) 성분이 현미의 8배, 후미의 4배 함유된 기능성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로 고품질 정읍 쌀의 명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물량과 수출가격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아동극 '마왕 먹사버짱과 마법의 산' 성황

80여명 관람... 재미 · 교훈 선사

정읍시가 지난 28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환경이동극 '마왕 먹사버짱과 마법의 산'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정읍시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공연은 수요조사를 통해 사전 예약한 어린이 80여 명의 큰 호응 속에서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



정읍시가 지난 28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환경이동극 '마왕 먹사버짱과 마법의 산'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권익현 부안군수, 위도면민과 '대화의 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29일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위도면을 찾았다. 이번 현장행정은 위도면의 주요 투자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평소 강조해온 현장 행정 소통 강화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 현안 정책을 공유하고자 실시했다.

먼저 면민들과 함께 위도면 주민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박정열 신임 위도 면장으로부터 위도면 현황보고 및 주요사업 설명을 듣고 30여명의 주

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위도면민들은 "상·하수도 관료교체 및 신설공사로 인한 도로포장 미비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고 이에 부안군수는 적극 행정을 추진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간담회 후 치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관련부서 및 사업 관계

자들에게 사업추진 시 면민이 우선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라고 독려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연초방문을 하지 못해 매우 아쉬웠지만 늦게라도 위도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건의하신 의견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 면민이 원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위도면민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위도면 치도리 끝별 위도격리 육종장 개소식에 참석해 육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변산면 '착한가게 3호점' 탄생

격포남부늪시에 현판 전달

부안군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선훈·박현선 변산면장)는 지난 28일 지역사회 희망나눔 실천에 동참한 착한가게 3호점인 격포남부늪시(대표 조순자)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중소기업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모든 가게를 말하며 월 30만원 이상 정기적인 기부를 하는 가게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정기기부로 모금된 후원금은

변산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복지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특화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의미를 더했다.

조순자 격포남부늪시 대표는 "변산면을 위해 작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우리 변산면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조선훈 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게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중한 후원금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